

G20, 생태계 보전 주민참여 강조 플라스틱 오염대응·기후적응 강화

환경부,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3년만의 선언문... 협력 방향 제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확대 촉구
폐기물 관리·순환경제 확산 논의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긴 이번 선언문은 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선언문은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자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의 경우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18일과 19일 양 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는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이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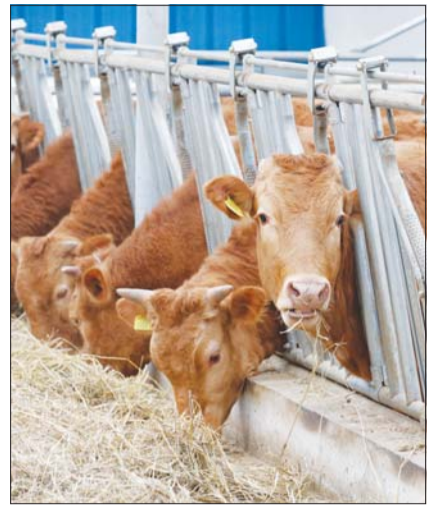
한우 수급안정·중장기 발전대책 적극 추진

축산정책관 주재 수급안정TF 첫 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우 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



임실의 한 축산농가의 한우들. /뉴스1

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 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종교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농기자재로 글로벌 시장 선도

한국농어촌공사, 수출 활로 개척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됐다.

농어촌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박람

회에 참가한 국내 25개 농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62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내달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안전보건공단

색으로 산업재해 예방 각종 안전표지 한 눈에

안전보건공단은 7일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3개 기관은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 등을 맡는다. 협회는 개발 자문과 교육, 삼화페인트공업은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올해 쌀 생산량 1.2% 하락 전망 재배면적 20년 전비 70% 감소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2022년부터 3년 연속 생산량 축소
예상 생산량 충남→전남→전북 순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라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톤)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충남 당진을 찾아 벼 작황을 둘러보고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락작물직불제 및 농타작물재배 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kg으로 1년 전의 523kg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낫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낫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권익위, 연말까지 서울 등 확대 계획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